

제4장 종교

1. 종교의 개관

1) 개요

종교(宗敎)의 의미는 특정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사회 집단과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종교는 인류의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예술 과학의 전영역에 깊이 관련되어, 한 나라의 문물제도를 마련하는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며 역사·문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또한 종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인간사회가 계속되는 한 인간과 공존하게 될 것이다. 현대사회의 종교적 특징은 종교의 다원화 현상이며 상이한 세계관을 가진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불교, 기독교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이들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하여 전승되어 온 민간신앙과 도교 등이 있다.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되어 오랫동안 우리나라 종교의 근간을 이루어 온 불교, 조선시대 우리나라 정치이념으로 자리잡았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유교, 조선 후기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구한말 이후 교세가 확장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천주교, 이보다 늦게 한국에 들어왔으나 현재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기독교, 또한 조선 말기에 최제우가 창시하고 손병희에 의해서 개칭된 천도교, 기타 신흥종교 등으로 우리나라 종교를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종교들의 보령지역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보령시의 종교현황

보령시는 지리적으로 해안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도 수도에서 외진 곳에 위치하여 종교의 유입이 비교적 늦었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 위에 전통적인 민간신앙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신흥 종교의 기반이 견고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타시군에 비하여 종교의 인구가 적은 편이지만 기독교 등 신흥종교의 급속한 유입과 발전은 보령시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추세이다.

보령시의 종교 인구는 약 27%이고, 가장 많이 신봉하는 종교는 기독교로서 보령시 인구의 대략 15%를 차지하고, 불교 7.3%, 천주교 3.2% 순이다. 기타 종교 역시 소수이지만 지역 곳곳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보령시 지역은 오랜 역사를 가진 유교, 불교보다 기독교의 교세가 강하며, 기독교 중에는 장로교가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지역별 종파별 종교현황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별 종교단체 현황

읍면동별	합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기도원	수운교	비고
합계	298	201	66	6	4	20	1	
웅천읍	25	15	7	1		2		
주포면	8	5	2		1			
주교면	25	18	4	1		2		
오천면	20	18	1		1			
천북면	16	12	3			1		
청소면	12	10	2					
청라면	33	13	13		1	5	1	
남포면	31	22	7		1	1		
주산면	14	9	4			1		
미산면	20	10	8	1		1		
성주면	16	6	4			6		
대전1동	18	16	1	1				
대전2동	8	6	1			1		
대전3동	30	25	4	1				
대전4동	7	5	2					
대전5동	15	11	3	1				

자료: 보령시 문화공보실(2007.12)

종파별 현황

종 파 별		수	신 도 수			비 고
			계	남	여	
유	교	4	950	850	100	
불	교	66	8,198	2,506	5,642	
기	독	111	8,368	2,759	5,527	
	장					
	로					
	교					

	감 리 교	33	3,011	1,029	1,982	
	성 결 교	11	1,532	606	925	
	침 레 교	25	1,713	563	1,150	
	구 세 군	7	555	165	705	
	기 타	23	1,048	345	703	
천 주 교		6	3,686	1,569	2,115	
기 타 교		4	493			
계		290	29,554	10,392	18,849	

자료: 보령시 문화공보실(2007.12)

2. 유교(儒敎)

유교는 본래 중국 춘추시대에 공자가 상고(上古) 이래의 선진성학(先秦聖學)을 집대성하여 천도(天道)로서의 인의예지(仁義禮智)의 4덕(四德)의 실천을 교지로 하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유교는 인간에게 주어진 천명의 도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천명을 신봉하는 종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유교는 신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종교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자의 도의사상을 인간생활의 기본윤리로 하는 것이고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고려할 때 종교적 범위에 넣을 수 있다.

이러한 유교가 한국에 전래된 것은 한문의 도입과 동시대였으리라는 것이 통설이다.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은 유교문화를 중국으로부터 적극 수용하였고 특히 충남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백제는 5경박사제도를 두어 유교를 교육하였고 왕인 박사와 아직기 박사는 일본에 천자문 등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백제의 유교는 말기에 계백, 성충, 홍수, 복신 등의 유교적 절의정신을 가진 충신들을 배출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정신은 충남지역에 근세 유학의 종자를 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고려시대는 정치사상으로서 유교가 수용되었다가 고려말 충렬왕 때 안향, 백이정 등에 의해서 우주만물의 이치와 인간의 심성연구,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이 전해져 정도전 등의 신진 사대부에 의해 적극 수용되었다.

이들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을 개창하고 승유정책을 표방하게 됨에 따라 유교는 전국의 모든 민간생활의 기본 신조가 되기에 이르렀다. 조선초기의 4대 사화와 같은 외면적 환란, 이기논쟁과 같은 내면적 갈등을 겪은 조선 중기 이후의 사림들은 인간의 주체적 실천에 의하여 의리를 사회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예의와 대의정신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집약된 예학사상과 대의정신은 다시금 한국 유교사에 있어서 조선 후기 성리학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서세동점(西勢東漸)과 외세침략에 자극되어 한말에 유림을 주축으로 일어난 위정척사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기본정신이 되었던 것이다.

일제침략기에는 국가종교로서의 유교체제가 허물어져 갔다. 그러나 도학파의 선비들은 의리론적 신념에 의해서 의병운동을 통하여 항거하거나 단발령, 창씨개명, 일본어 사용 등 일제의 동화정책에 저항을 전개함으로써 전통수호의 보수적 태도를 지켜 나갔다.

해방후 1946년 성균관 유도회가 유림독립운동가의 대표격 인물인 김창숙(金昌淑)에 의해 재조직 출범하였으며 교육기관인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 후 유림 분규를 수습하면서 조직을 재건하고 도덕운동을 중심으로 사회교화에 노력하였다.

오늘날은 유교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다보니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의 우리는 유교의 올바른 전통을 계승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지방 유학교육기관으로서 향교와 서원이 있는데 이들은 지방에 유학사상을 보급하고 유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 향교

향교는 조선시대의 지방 교육기관으로 고을마다 설치하여 유학을 가르치던 곳이다. 성균관의 하급관학으로서 문묘, 명륜당, 동무와 서무, 동재와 서재를 갖추고 있었다.

유생의 수는 부·목에는 90명, 도호부는 70명, 군현에는 30명으로 정하고 직원으로는 교수 1인, 훈도 1인을 두되 작은 군현에는 훈도 1인만을 두었다.

중종 39년(1542) 풍기군수 주세붕이 지방 사립학교격인 서원을 세워 사액을 받은 이후 부터는 서원이 떨치게 되자 향교는 쇠퇴하여 갔고, 고종 31년(1894) 과거제도 폐지와 함께 향교의 기능은 문묘에 배향된 인물을 춘추로 향사(享祀)하는 석전제(釋奠祭)만 남게 되었다.

1918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향교 총수는 335개, 소관 토지는 48만 평이었으나 1949년의 농지개혁령에 의해 토지는 농민에게 분배되어 향교는 향사비용이 궁하게 되었고 보수는 국고에 의존하게 되었다.

직원(職員) 연혁을 살펴보면 조선 초에 종9품인 훈도(訓導)를 두어 관내 교육을 담당 하게 하였고 중종 때는 도유사(都有司) 1인, 장의(掌議) 2인을 두고 일체의 사무를 담당케 하였다. 융희 3년(1909)에는 이를 폐지하고 직원(直員)을 두어 문묘향사지의(文廟享祀之儀)를 맡아보게 하고 直員을 학부대신이 임명하였고, 1910년 한일합방후에는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건국 후에는 전교(典敎)라 개칭하고 중앙의 성균관장이 임명하여 왔다.

보령지방의 향교는 보령향교, 남포향교, 오천향교가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보령지방의 향교활동

보령 남포 오천 등 보령지역 3개소의 향교에서는 각각 연 2회(2월 8월 初丁日) 석전대제(釋奠大祭)와 충효교실 운영, 그리고 연 1회 합동 기로연(耆老宴)을 열고 기타 행사에 참여한다.

석전대제는 전교(典敎)가 장의회(掌儀會)를 열어 제향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 헌관천장(獻官薦狀) 및 제관망첩(祭官望帖)을 발송한다. 초헌관은 시장,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이 돌아가며 맡고, 아헌관은 유림, 원로 전임헌관(前任獻官) 중에서 선정하고, 종헌관은 제관 중에서 선정한다. 집례자의 창홀(唱笏)에 의하여 석전을 봉행하며 제례 후에는 유림 총회를 연다.

충효교실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충 효 예와 한문 일반상식 등을 교육하고 각급학교에 충효교실과 관련한 강사도 파견하며, 지역의 효자 효부를 선정하여 성균관장의 표창을 주선하기도 한다.

기로연은 3개 향교 합동으로 매년 12월 대천문화원에서 70세 이상 노인 500여 명을 모신 가운데 전통음악 공연, 기념품 제공, 음식접대 등으로 흥겨운 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한다.

이 밖에도 관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의 제례부분에 참여하여 산제, 풍년제, 풍어제, 도미부인추모제 등을 주관하며, 수현사(水絃祠) 문헌사(文憲祠) 집성당(集成堂) 삼사당(三祠堂) 등 관내 유명한 사우의 제향과 김좌진장군묘소 제향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령지역의 향교현황

향교명	위 치	창건시기	관 할 구 역
보령향교	주포면 보령리 27-1	태종대	주포면, 주교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지역
남포향교	남포면 옥동리 9	1413년 이전	남포면, 웅천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오천향교	오천면 교성리 산166	1901년	오천면 천북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편 참조

3) 서원(書院)

우리나라 최초로 서원이 세워진 것은 조선 중종 37년(1542)으로 풍기군수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세운 것이 시초이다. 서원은 선현을 제사하고 유학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진 지방의 사학(私學)이었다. 그후 전국에 많은 서원이 생겼으며 1550년에 퇴계 이황의 건의로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하고 서적, 노비, 토지를 주어 서원을 장려하게 됨에 따라서 소수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후 향교는 쇠퇴해 가는 반면 지방 사림들에 의해서 세워진 서원은 거의 사액서원이 되면서 전국 각처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명종 이전에는 29개, 선조 때 124개, 숙종 때 1개 도에 80-90여 개가 세워졌으며 정조 때는 650여 개를 헤아리게 되었다. 서원의 증가는 지방에 유학교육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일종의 특권이 부여되어 부속토지는 조세가 과해지지 않았고 양민의 균역기피장소가 되어 백성들이 불법적으로 스며들어 원노(院奴)가 되기도 하였으며 서원이 양민을 토색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 서원은 처음에 사림들의 중앙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였지만 점차 당쟁의 소굴로 변하여 갔다. 이 당시 전국에서 알아주는 서원은 도산서원, 화양동서원, 만동묘 등이었다.

이러한 서원의 폐단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전국적인 유생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정리를 하지 못하던 중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정리되었다.

1864년에 대원군은 유생들의 조직적 반발을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백성을 해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서원철폐령을 내려 전국의 대부분 서원을 철폐하고 세상에 사표가 될 만한 47개의 서원만 남겨 놓았다.

4) 화암서원 현황

화암서원은 보령지역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원이다. 조선 광해군 2년(1610)에 창건하고 숙종 12년(1686)에 사액되었다. 처음에는 土亭 李芝函, 鳴谷 李山甫, 天休堂 李夢奎 세 분을 봉안하다가 일제시기에 退憂堂 李廷範, 1971년에 睡庵 具繼禹를 추가로 배향함으로써 5위를 봉안하여 제향하고 있다.



화암 서원

서원철폐령에 따라 고종8년(1871) 훼손된 것을 1920년에 토정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유림들이 다시 건립하였고 청천저수지로 수몰됨에 따라 현 위치에 이진하였다. 위치는 현재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산 27-1번지이고, 1984년 5월 17일에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138호로 지정되었다.

화암서원은 정기적으로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일(中丁日)에 제향을 하고 있으며, 교학 사업으로 관내초등학교 방학기간 중 충효교실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5) 보령시 유도회(儒道會)

유도회는 1945년 광복 이후 10월에 전국유림 2,500여 명이 성균관 명륜당에서 첫 회합을 열어 결성한 전국적인 유림단체이다. 문선왕(文宣王) 공부자(孔夫子)의 도덕을 근간으로 윤리도의(倫理道義)·윤리부식(倫理扶植)·수제치평(修齊治平)·사회질서순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초대 위원장에는 심산 김창숙(金昌淑)을 추대하고 부위원장에 김성규(金成圭)·이기원(李基元), 감찰위원장에 이재억(李載億)을 추대하였다. 조직으로는 중앙에 유도회 총본부가 있고, 각 시도에 본부와 그 밑에 230여 지부가 있다. 유도회의 산하기구로써 여성 유도회·청년유도회가 있다. 1975년 여성유도회가 창립되었고, 1976년 한국청년유도회가 창립되어 여성과 청년 유교인의 조직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충효교실을 설치하여 예절교육, 다도(茶道) 등과 관련된 순회강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관지는 1964년 창간된 <유림시보(儒林時報)>에서 시작하여, 그후 <유림월보>로 개칭되어 월간으로 간행되다가, 1987년 격주간의 <유교신보(儒敎新報)>로 간행되고 있다. 그 밖에 연관조직으로는 성균관의 교육사업에 따라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했고, 유학대학에서는 유학과를 중심으로 유교사상을 교육하고 있으며, 유학대학원에서는 유교지도자를 교육하고, 그 밖에 유림의 계획적인 훈련 및 연수 기구도 있다.

보령에서도 유도회가 향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회 장	인 원	구 분	회 장	인 원
보 령 유 도 회	이봉규	33	남 포 부녀 유도회	전숙자	15
남 포 유 도 회	오치정	25	오 천 부녀 유도회	지득순	10
오 천 유 도 회	신병희	20	보 령 청년 유도회	최득수	25
보 령 부녀 유도회	이덕훈	21	남 포 청년 유도회	김유제	10

2008. 7월 현재

3. 불교(佛敎)

1) 불교의 전래 및 보령

불교는 고대 인도의 석가모니가 중생들을 생로병사의 번뇌에서 해탈시키고자 출가하여 오랫동안의 수도 끝에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에게 고뇌에서 해탈하는 방법을 설교하면서 만들어진 종교이다.

이 불교는 삼국시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민족의 정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오늘날도 많은 신도수를 거느린 종교 중의 하나이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의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될 무렵인 4세기말이었다. 최초로 고구려에 372년 전래되었고, 이어서 백제, 신라순으로 왕실과 귀족계층에서 적극 수용하였던 것이다. 당시 왕실이나 귀족계층에서 불교를 수용한 이유는 고대 원시 종교체제하의 백성들의 사상을 통일하여 중앙집권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당시 불교는 종교로서의 구실과 함께 서역과 중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달하여 고대문화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인간사회의 갈등이나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소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백제의 불교는 침류왕 원년(384)에 남중국 동진(東晉)의 마라난타가 전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다음 해 한강유역의 도읍인 한산에 불사(佛寺)가 최초로 세워지고 백제인 승려 10여 명이 생기게 되었다.

그 후 웅진시대에 이르러 성왕 4년(526) 인도로부터 겸익(謙益)이 돌아온 후부터 불교가 활발히 움직이게 되었다. 그 후 사비천도(538) 후에는 백제의 노리사치계에 의해서 일본에 불교가 전래되었으며 (현재 부여에 ‘불교전래사은비’가 있음) 일본 승려들이 백제에 유학하기도 하면서 백제불교는 크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 백제의 불사 건립은 공주의 흥륜사, 대통사, 그리고 부여지역의 왕흥사, 정림사, 금강사 그리고 사비시대의 지방 주요지역인 공주와 익산에 수원사, 미륵사 등이 세워지게 되었다.

백제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당시 국도의 외곽지역이었던 보령지역에도 사찰이 건립되면서 불교의 씨가 뿌려지게 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보면 백제 법왕이 현성주산에 오합사(烏合寺)를 세웠는데 그것이 현재의 성주사지로 남아온다.

통일신라에 들어와서도 지배적인 사상은 불교였다. 이미 삼국시대에 백제, 고구려, 신라에서 국가적 종교로 위치를 굳힌 불교는 삼국통일 후에도 신라에서 왕성하게 집착됨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통일신라 초기의 불교는 교종 계통의 5교의 종파가 귀족들의 환영 속에 발전을 거듭하였고 지방의 토호세력에 의해 많은 사찰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었다.

통일신라 말기에 이르러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선종이 크게 발전하여 교종과 대립하면서 전국에 선종 9산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개인적 정신세계를 강조하여 심성의 도야를 중시하는 선종은 교종중심의 5교와 대립하면서 중앙귀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으나 지방호족들에게 환영받아 변방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나갔다.

특히 성주산의 성주사(聖住寺)는 신라 태종 무열왕의 8대손인 무염대사가 백제시대의 오합사를 확장 증건한 사찰이었다. 그는 헌강왕 13년(821) 당나라에 들어가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불도를 닦고 보철화상(寶徹和尚)에게서 법인을 받고 동방대보살이라고 불리는 명승이 되었다. 그는 귀국하여 성주산에 들어가 성주산문의 개조가 되었는데 시호는 대낭혜화상이다. 대낭혜의 문제자가 2,000여 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성주사는 대단히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불교는 국가적 종교로 발전하였다. 태조 왕건은 불교를 독신하여 도성에 10사(寺)를 세우고 연등회와 팔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등 숭불정책을 펴 불교에 의한 국가호위를 강조하여 고려의 불교는 호국불교로서 시작되었다. 그 후 백성들도 한결같이 불법을 신봉하여 기복불교적인 불교를 발전시켜 나갔으니 전국 곳곳에 사찰이 많이 세워지면서 불교가 번성하였다.

우리 보령지역에서도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통일신라말 9산선문의 대찰이었던 성주사가 고려시대 이 지역의 중심 사찰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송유정책을 표방하게 됨에 따라 불교에 대한 여러 정비책을 시행하여 그 교세가 고려시대에 비하여 크게 약화되었다. 불교에 대한 정비책으로 도첩제를 실시하고, 종파를 선교양종으로 통합하여 사원의 건립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읍성내의 사찰을 철폐하였으며 성 밖 먼 거리에 위치한 산중사찰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불교는 국가지도 이념으로서의 지위는 잃었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민간사회에서는 여전히 신봉되었다. 불교는 국가와 개인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종교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민간신앙의 하나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조선전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과 조선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보령지역(당시 保寧縣과 藍浦縣)의 사암(寺庵)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당시의 기록에 남아있는 사찰은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전부가 산지에 입지하고 있는 사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보령지역의 사찰분포

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崇巖寺, 在 聖住山 永興寺, 在 峨嵋山 玉溪寺, 在 羊角山 舍那寺, 在 白月山 聖堂寺, 在 烏棲山 聖住寺. 在 聖住山	崇巖寺, 在 聖住山 永興寺, 在 峨嵋山 玉溪寺, 在 羊角山 天井寺, 在 烏棲山

위와 같은 기록에 의한 사찰 이외에 보령지역에서 역사적으로 건립되었다가 폐사된 사찰들의 사지 중 현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도 많은 곳에 ‘절터’ ‘절터굴’이라는 지명이 전하고 있다.

- 花山洞 寺址 - 보령시 화산동 1001번지
- 藍谷洞 寺址 - 보령시 남곡동 탑동
- 蓼岩洞 寺址 - 보령시 요암동 절굴
- 寒山寺址 -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 陽基里 寺址 - 보령시 남포면 양기리 위텃골 동쪽 골짜기
- 九龍寺址 -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 東里寺址 -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동쪽 골짜기
- 南深里 寺址 -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부처말골 골짜기
- 靑龍寺址 - 보령시 미산면 청룡골 서쪽 골짜기
- 都興里 寺址 - 보령시 미산면 도흥리 백계 고개 아래 골짜기
- 東山寺址 - 보령시 미산면 삼계리 동산
- 龍水里 寺址 -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천방
- 蝴蝶寺址 -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호접동
- 碧南洞 寺址 -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벽남
- 寬倉里 寺址 -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사동
- 沙湖里 寺址 -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통포
- 蘿院里 寺址 -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다리재(다리티)
- 玉溪里 寺址 -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정동 서쪽 골짜기
- 聖淵里 寺址 -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성곡
- 邑內里 彌勒터 -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서쪽으로 옥서리 저수지 위에 미륵이 서 있었다.

2) 보령시의 불교현황

(1) 종단의 개황

1967년 5월에 창립한 불교종단협의회는 종단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불교계의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 추진함으로써 불교 중흥,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은 25개 종단이다.

충청남도 불교종단 현황을 보면 대한 불교 조계종의 25교구 중 제 6,7교구(마곡사, 수덕사)를 비롯하여 한국불교 태고종 등 여러 종단의 교구 및 지부 법인단체 등이 있다. 이들 중 보령시내 사찰들이 속해있는 종단 몇 가지만 소개한다.

① 대한불교조계종

1962년 12월 14일자로 등록된 종단으로서 우리나라 불교 25개 종단 중에 최대 종파이다.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자각각타각행원만(自覺覺他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奉體)로 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宗旨)로 하고 있다. 즉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며 깨달은 다음의 행동이 원만하도록 하는 근본 교리를 받들어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르쳐 견성과 성불에 이르도록 하며 불법전수와 중생제도에 힘쓰고자 한다는 것이다.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는 금강경(金剛經), 전등법어(傳燈法語) 등 전통정전(傳統正典)이며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하고 있다. 종조(宗祖)는 도의선사(道義禪師)이며 한국불교의 적통을 계승한 대표적인 종단이다.

현재 전국을 25개 교구로 구분하여 본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 총 본사는 서울 종로구의 조계사이다. 이들 사암의 지역적 분포는 타종파에 비해 비교적 전국적인 분포대를 나타내고 있다. 보령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사암은 마곡사 본사의 6교구에 속해 있다.

② 한국불교태고종

1970년 5월 8일자로 등록된 종단이다. 교리는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자각각타각행원만(自覺覺他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奉體)로 하고 태고종조종풍(太古宗祖宗風)을 선양하며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주로 하고 있다. 금강경(金剛經), 화엄경(華嚴經)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으며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이다. 태고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를 종조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사암 중에서 태고종 소속 사암이 약 2,800여 개로 사암 수로는 전국 최대의 종파라고 볼 수 있다.

③ 대한불교법화종

1946년 4월 서울 성북동의 무량사에서 김갑렬(金甲烈) 스님이 창종하였으며 법화사상(法華思想)에 속하고 있다. 1969년 5월 31일자로 등록된 종단이다. 고려 의천 대각국사가 수립한 정통법화 종문으로 대중불교, 애국불교, 생활불교 운동을 통하여 민족화합을 이룩하고 인류의 영원한 불국토 구현을 이상으로 한다.

교리는 미륵 본래의 정신을 선양하고 미륵십선도의 교리에서 국가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우주일가 및 지상낙원을 이룩함을 종지로 하고 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으며 본존불은 미륵영존불이다. 종조는 대각국사 의천이다. 현재 전국에 1,200여 개의 사찰이 있다.

한편 법화종을 창종한 김갑렬은 보령 웅천출신으로 그의 고향인 웅천읍 평리에는 1975년에 세운 정각정사(正覺精寺)가 있어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연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절 뒷산에 그의 묘소가 있다.

④ 대한불교총화종

1969년 12월 30일자로 등록된 종단이다. 교리는 석가세존의 교리를 봉체(奉體)하며 종조의 대수행원(大垂行願)과 문화정신(文和精神)을 체득하여 생활과 직결된 대중 현대 불교의 구현으로 안심입명(安心立命), 광도중생(廣度衆生), 보국안민(輔國安民)함을 종지로 하고 있다. 화엄경이 소의경전이며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이다. 종조는 태고보우국사이다.

⑤ 한국불교법륜종

1988년 11월 30일 한국불교법륜종을 창종하였으며 제56대 석옥청공(石屋淸珙)선사의 법통을 이어받은 고려 공민왕 국사 태고보우(太古普愚) 원증국사의 원융사상을 종풍으로 삼아 그 법맥을 면면히 계승하였다. 석가세존의 자각각타각행원만(自覺覺他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종조의 선교쌍수(禪敎雙修)의 통불교적인 종풍을 선양하여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한다.

(2) 보령시의 사찰현황

보령지역에 현존하는 사찰들은 대부분 해방 이후에 건립되어 불교 신도들의 신앙의 도장이 되고 있으며, 현재 66개 사찰이 있고 신도수는 약 8,200여 명에 달한다.

해방 이전에는 주변 수덕사나 무량사 등 대찰이 우리 지역 신도들의 신앙도장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림사(오천 소성리 소재)



천수암(청라 의평리 소재)

읍면동별 사찰 현황

사찰명	소재지	성명	신도수			종파명
			계	남	여	
단원사	웅천 수부리 산13	이숙자	250	70	180	법화종
정요사	웅천 수부리 산14-1	김금타	150	50	100	법화종
관음사	웅천 수부리 산22-1	조해공	50	30	20	법륜종
천용선사	웅천 죽청리 산44	김진철	70	30	40	해동달마종
봉은사	웅천 성동리 산13	오석화	30	10	20	조계종
운봉암	웅천 대창리 산15	해법		15	45	조계종
보현사	웅천 관당리 766-1	법혜(윤영하)	780	312	468	조계종
동광사	웅천 성동리 산10					
웅덕암	주포 보령리 117	김월례	20		20	원흥종
봉화사	주포 보령리 277	김인모	60	10	50	대각종
세원사	주교 주교리 414	박찬이	84	21	63	조계종
대원사	주교 신대리 907	구자일	150	25	125	법화종
보령사	주교 신대리 177-45	진광호	13		13	
선림사	오천 소성리 산5	오인수	500	100	400	조계종
청연사	천북 신덕2리 산138	김광진	16	4	12	태고종
영산법화사	천북 사호리 303	김학량	15	2	13	법화종
지장사	천북 하만4리 894	김거동	70	20	50	조계종
청용사	청소 성연리 산87	김항기	20	0	20	태고종
각소암	청소 죽림리 산99-3	정남예	12	2	10	조계종
운흥사	청라 소양리 산30	김옥예	150	30	120	법화종
월정사	청라 장현리 산52-2	손영이	50	0	50	법륜종
천축암	청라 장현리 산52-1	박경수	50	10	40	법륜종
관음사	청라 옥계리 산6	김정원	50	5	45	법륜종
완왕사	청라 내현리 746	한인동	150	30	120	법륜종
황룡암	청라 황룡리 543-13	유문자	600	200	400	법륜종

천 수 암	청라 의평리 353-1	박용철	1,000	400	600	법륜종
무 진 사	청라 향천리 287	최동호	100	30	70	불승종
묘 적 사	청라 의평리 산12	장현기	100	10	90	법륜종
봉 곡 사	청라 장현리 94	정준예	30	10	20	태고종
용 두 사	청라 황룡리 512	김경옥	80	40	40	태고종
성 주 정 사	청라 의평리 산15-2	정성옥	10	5	5	조계종
신 흥 암	청라 장산리 115	이성환	200	50	50	개각종
윤 창 암	남포 창동리 산41	유원준	200	60	140	법륜종
금 룬 사	남포 창동리 산17	이안기	100	40	60	법륜종
약 수 암	남포 창동리 산8	신재균	20		20	삼윤종
봉 덕 암	남포 봉덕리 238	어영순	20		20	
도 고 사	남포 옥서리 12	유부근	120	40	80	대한불교
부 영 사	남포 창동2리	김부영	8	4	4	
묘 법 정 사	남포 옥서리	강정				
지 황 사	주산 주야리 396-3	임학열	90	20	70	법상종
용 주 사	주산 금암리 산107	임창욱	110	40	60	원효종
청 룬 암	주산 유곡리 43	김종선	20	7	13	조계종
천 주 암	주산 주야2리 389	유인순	10		10	조계종
금 강 암	미산 용수리 산59	김인구	300	60	240	조계종
중 대 암	미산 용수리 산59	홍성자(도연)	200	70	130	조계종
보 현 사	미산 용수리 산5-1					
대 명 암	미산 봉성리 산89	이춘우(덕유)	15	2	13	조계종
광 덕 사	미산 용수리 산8	박숙분	50	10	40	
관 음 사	미산 풍계리 산54	신정자	0			
죽 림 정 사	미산 삼계리 378	김인원				
산 암 사	미산 도화담리산38-1		0			원각선교종
백 운 사	성주 성주리 산35-2	박용출	50	10	40	조계종
성 주 사	성주 성주리 68	주성훈	50	10	40	삼론종
용 선 암	성주 성주리 산29	허복수	15	5	10	태고종
신 불 암	성주 성주리 산29	월찬	60	20	40	
신 흥 사	죽정동 산21	홍성자	50	10	40	조계종
대 승 사	대천동 137-1	정욱	100	30	70	조계종
청 룬 사	동대동 산30	이만순	30	9	21	천태종
성 원 사	동대동 1번지	이화순				
대 영 사	명천동 산69	곽상남	300	130	170	조계종
왕 대 사	내향동 산97	혜정	1130	330	800	조계종
배 달 정 사	신희동 산58	안치상	20	3	17	조계종
덕 은 사	남곡동 311-21	박삼준	200	60	140	총화종

자료: 보령시 문화공보실(2007.12)

4. 천주교

1) 천주교의 한국전래

천주교를 카톨릭(Catholic)교회라고도 한다. 교회가 카톨릭교회로 불린 것이 서기 110년경 순교자 알니키아의 주교 이나시오가 스미르나(서머나)교회로 보낸 편지에서부터였다고 한다. 카톨릭이란 보편적, 일반적, 세계적이란 의미를 가지며, AD33년경 창립된 종교로써 창립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베드로 바오로 등이 완성한 종교이다.

동양의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서양종교를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천주교를 통해서였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청나라에 간 사신들에 의해서 『천주실의』 등 천주교 관계 서적이 수입된 이후 부터이고, 실질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말기인 18C 말엽부터로 볼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봉건제 양반체제는 동요를 거듭하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 종래까지 봉건적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왔던 유교적 규범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천주교는 황해도 지방의 일부 농민들 사이에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북경을 왕래하던 조선 사신들이 북경의 선교사들과 접촉하여 천주교를 조선에 정착 시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의 직접적인 선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저술한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천주교의 전래는 자발적 수용이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다른 나라의 천주교 전래는 선교사들에 의한 복음전파였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만은 외국 선교사의 선교를 기다리지 않고 자진하여 외국에 나아가 진리를 구하고 그리스도교의 서적을 연구하여 전파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은 우리 조상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가꾸어 온 교회인 것이다.

조선사신들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한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는 남인 학자들 사이에 환영되었고, 권철신을 중심으로 한 정약전, 이벽 등 당대의 이 남인 유학자들은 1779년 경기도 광주의 천진암과 경기도 여주의 주어사(走魚寺)에서 가진 강학을 계기로 천주신앙을 일으키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싹트기 시작한 천주신앙은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돌아와 이벽과 함께 선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비로소 신앙공동체가 구성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양반 학자와 중인들이 입교하였는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천주교 교리를 통한 사회개혁에 더 관심을 보였다. 천주교가 사회개혁을 회구하고 있던 중앙의 선진적

지식인들 사이에 전해지면서부터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불온한 사상으로 비쳐지게 되었던 것이다. 양반과 중인, 상민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본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양반 관료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유교적인 윤리규범은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에 조선조정은 정조 9년(1785) 천주교에 대한 금령을 내리고, 이후 계속해서 신유사옥(1801), 기해사옥(1839), 병오박해(1846) 등을 비롯하여 대원군 집정기의 병인박해(1866) 등으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봉건적인 정부가 천주교를 탄압하였어도 천주교 신자 수는 줄지 않았으며, 특히 1836년 외국인 신부로서는 최초로 프랑스의 모방(Maubant) 신부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잇달아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부터는 천주교 신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865년에는 23,000명에 이르게 되었고 일반민중뿐만 아니라 궁내의 부녀자와 왕실에 까지도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박해는 대원군의 실각, 문호개방과 개화정책에 따라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개화기의 천주교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1906년 경향신문의 발간을 들 수 있다. 교육운동에 있어서는 초기에 초등교육 분야에 치중하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서서 중등교육기관도 운영했다. 특히 한불조약(1886)은 조선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보호하게 되었다. 한불조약으로 선교의 자유가 허용되자 본당과 공소 조직은 더욱 확대됨으로써 교구의 증설이 뒤따르게 되었다.

자원산교구(1920), 평양교구(1927), 연길교구(1928), 전주교구(1927), 광주교구(1937), 춘천교구(1939) 등이 신설되는 등 교세가 확장되어 일제말기에는 신자 수 20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1942년에는 노기남(盧基南, 1902~1984) 주교가 서울 교구장을 맡게 되어 한국인으로는 첫 교구장이 되었다.

또한 동시에 170여 개의 본당과 1,500여 개의 공소조직을 갖추게 됨으로써 복음은 전국방방곡곡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도지방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해방된 해에는 우리나라에 8개 교구, 7명의 주교, 2명의 교구장을 비롯하여 신부로는 한국인 128명에 신도수 18만 3천 명을 확보하고 있었다. 1962년 노기남, 서정길 주교가 한국 최초의 대주교로 승품(昇品)되었으며 선교지역의 교구였던 것이 독립된 정식교구로 승격되었고, 1969년에는 김수환 대주교가 한국 최초의 추기경으로 승품되었다. 이는 한국 천주교 역사 192년 만에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추기경이 되었던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 천주교는 전세계 천주교의 주요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 이후 한국 천주교는 고조된 사회참여 의식 속에서 교회 쇄신운동에 힘써 1970년대에 시작된 정의구현운동이 일기도 했다.

1984년에는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을 맞아 ‘이 땅에 빛을’이라는 표어와 함께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벌이고, 또한 한국의 순교 복자 103위가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서 장엄하게 시성됨으로써, 유럽의 오래된 전통적 그리스도교 국가들처럼 많은 성인을 모신 나라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1989년에는 제 4차 세계성체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교회의 쇄신과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2) 보령시의 천주교

충청도의 내포지방인 예산, 홍성, 서산, 보령지방은 일찍이 많은 천주교 신자가 생겨 탄압을 받은 곳이다. 정조 15년(1791) 11월 승정원에서 올린 글에 전승지 이수하(前承旨 李秀夏)의 사는 곳은 보령현으로, 사학(邪學)이 우치(尤熾)하여 현감 김일운(金日運)이 10여 인을 징계하였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였고, 정조 18년(1794) 청나라 신부 주문모(周文模)가 입국, 서울에 있으면서 몰래 지방에 다니며 포교활동을 하였는데 이때 연산, 호서의 남포, 온양, 내포지방에 드나들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지역에 천주교가 18세기 말에 전래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내포지방에는 일찍부터 천주교가 크게 번져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당진의 김대건(金大建)과 청양의 최양업(崔良業) 신부 등을 배출하였으며 아울러 당진지방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주교 채택지가 되었다. 그 후 많은 지역에 해방 전까지 천주교가 채택되었으나 보령지역의 천주교 채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은 1960년대 초반이다.

한편 보령 출신으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김한빈(金漢彬)인데 그는 보령현 출신으로 남인학자 정약용의 낭속(廊屬)이었는데 서학에 빠져 황사영(黃嗣永) 등을 도와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무엇보다도 보령지역의 천주교에 관한 연관은 갈매못 순교성지를 들 수 있다.

(1) 갈매못 순교성지

갈매못 순교성지는 현재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에 위치하고 있다. 천주교의 대표적인 순교성지로서 보령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천주교박해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참고적으로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2008년 6월



갈매못 순교성지

29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성바로 사도 탄생 2000주년 기념 전대사(全大赦)’ 수여 지정 성지로 선포하였다.

갈매못은 1866년 병인박해 당시 프랑스 선교사 3명과 한국의 천주교인 2명이 순교한 곳이다. 순교자는 안토니오 다블뤼 주교, 루카 위앵 신부, 베드로 오메르트 신부 등 프랑스 신부 3명과 장주기, 황석두 회장으로 한국인 2명이었다.

갈매못 순교자 현황

성 명		출 생 및 출 생 지	입 국	직 위	묘 소
성 명	세 례 명				
다블뤼 (安敦伊)	안토니오 (Antonious)	1818. 3. 16(49세) 프랑스 아미앵	1845. 8	주교	절두산
위앵	루카 (Lucas)	1836(30세) 프랑스 기욤벨(Guyonville)	1865. 5	신부	절두산
오메르트	베드로 (Petrus)	1837. 4. 8(29) 프랑스 에젝(Aizecq)	1862. 6	신부	절두산
장주기(張周基)	요셉 (Jesephus)	1803 (63세) 경기 화성시 양감면 육당리		회장	절두산
황석두(黃錫斗)	루카 (Lucas)	1813(53세) 충북 연풍면 변방골		회장	절두산

자료: 한국천주교회사

이 때 순교한 안다블뤼 안토니오主敎는 1866년 3월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황석두와 함께 합덕 거터리에서 체포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뢰오메뜨르 베드로 神父와 위앵 민신부도 많은 신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수하였다. 한편 충북 제천에서 잡힌 장주기 요셉 회장은 다블뤼 주교와 함께 형장으로 보내달라고 청하여 합류하게 되었다.

서울이 아닌 보령에서 처형된 이유는 다가오는 고종의 국혼에서 비롯되었다. 국혼이 3월 21일로 예정됨에 따라 서양인들을 처형하면 복술의 효력에 해가 미칠까 두려워하였으며, 서울에서 피를 흘리면 국혼에 불길한 징조가 될 것이라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에서 250리 떨어져 있는 충청수영에 내려가서 처형하라는 명령에 의해, 이곳 수영 관할내의 갈매못에서 처형한 것이다.

당시 제일 먼저 순교한 안토니오 다블뤼 주교는 21년 동안 조선에 머물면서 『한중 불사전』을 편찬하였으며 한국천주교회사 사료 수집을 하였고, 1866년 3월에는 조선 카톨릭 5대 교구장으로 임명될 정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루카 위앵 신부는 조선에 온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형장으로 가는 가운데 “나는 젊어서 죽는 것도, 칼을 받아 죽는 것도 고통스럽지 않다. 그러나 저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괴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천주교회사』

충청수영의 주관하에 1866년 3월 30일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황석두 회장의 시신은 홍산 삽티에 장사지냈고 후에 다시 명동성당으로 옮겨졌다. 남은 4구의 시신은 신자들에 의하여 남포 서지골(현 미산면 평라리 서지골, 수몰지구)에 매장하였다. 1882년 시신은 서지골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옮겨 매장하였다가 1894년에 다시 명동성당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에 안치되어 있다.

당시 사형장은 1975년 9월 대천성당 주임 정용택 신부가 위치를 확인, 순교복자비(殉教福者碑)를 세웠으며 2006년 10월에 승리의 성모성당을 준공하여 순교순례지로서 전국의 신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2) 대천천주교회

보령의 최대 성당인 대천천주교회는 장항성당의 공소로 시작되어 1962년 10월에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1988년 웅천 공소, 1994년 은포리공소, 1999년 해수욕장 성당, 2002년 대천동제2성당(보령 동대동성당), 2003년 갈매못성당 등으로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보령지역의 천주교회는 1990년대 이후 확장하였으며, 신도수도 2008년 현재 대략 3,700여 명에 이른다.



대천천주교회

① 연혁

- 1962. 10. 17 장항본당 관할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 초대 김영곤(필립보) 신부 부임.
- 1964. 10 제2대 길스타니 슬라오(프랑스) 신부 부임.
- 1966. 09. 09 성당 신축부지 매입(334평).
- 1967. 08. 11 순교 100주년 기념행사, 순교성지 갈매못 발굴 시작.
- 1969. 12. 31 신축성당 및 사제관 준공.
- 1970. 05. 12 성당 축성 미사(황민성 주교).
- 1973. 05 대천성당 부설 대천유치원 개원. 원아모집(1학년, 40명).
- 1973. 09 대천신용협동조합 창립(초대이사장 황영주 베드로).
- 1973. 12 수녀원 신축.
- 1974. 02. 15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 첫 부임(2인).
- 1974. 09 갈매못 순교성지 순교 복자비 건립 제막식(황민성 주교).
- 1975. 09 순교지 오천면 영보리에 순교복자비 건립.

- 1984. 09 순교성지에 돌 제대(祭臺) 설치.
- 1985. 09 갈매못 순교지 시성기념 순교 성인비 건립.
- 1988. 02 응천공소강당 축성 및 미사 봉헌.
- 1989. 02 대천유치원 폐원 - 총 졸업생 935명(1974년-1989년).
- 1989. 12. 27 교육관 축성 및 봉헌미사.
- 1992. 07. 02 제 2성당 부지 매입(답 3,098m², 명천동 294번지).
- 1993. 04 순교성지 복토 및 잔디 이식.
- 1994. 08. 21 은포리 공소강당 신축 완공 및 봉헌미사.
- 1998. 10. 08 갈매못 성지 경당, 사제관 수녀원 기공식.
- 1999. 09. 17 해수욕장 성당 신설,
(68세대, 159명-신흥동, 요암동, 남곡동, 남포면 일대 관할).
- 2002. 02. 07 보령 대천동 제2성당 신설(보령 동대동성당, 523세대, 1,297명).
- 2003. 02. 17 갈매못성지 성당 신설(오천면 일대 관할).
- 2004. 12. 24 강당 축성.
- 2005. 10. 02 흥성지구 순교자 현양대회(홍주산성-230명 참석).
- 2006. 02. 21 파티마의 성모상 순회기도 412명 참석. (보령 동대동, 요나성당 공동 참석).
- 2007. 10. 29 본당의 날 및 추수감사제.

② 역대 주임신부

순번	성명(세례명)	부임일자	전임일자	비고
1대	김영곤(필립보)	1962. 10. 17	1964. 10	
2대	길 스타니슬라오	1964. 10	1965. 01. 02	
3대	태요한(요한)	1965. 01. 02	1968. 12. 27	
4대	이계창(아우구스티노)	1968. 12. 27	1971. 07. 22	
5대	이종대(요셉)	1971. 07. 22	1975. 04	
6대	정용택(요한)	1975. 04. 10	1977. 10	
7대	유영소(블라시오)	1977. 10. 17	1982. 09. 17	
8대	손만재(요한)	1982. 09. 17	1987. 08. 27	
9대	오일복(요한)	1987. 08. 27	1991. 08. 23	
10대	신상욱(토마)	1991. 08. 23	1996. 01. 24	
11대	윤인식(바오로)	1996. 02. 01	1999. 02. 04	
12대	백승욱(이시도르)	1999. 02. 04	2004. 02. 12	
13대	윤인용(바오로)	2004. 02. 12	2006. 01. 19	
14대	이범배(바오로)	2006. 01. 19	현재	보령 지구장 겸임

(3) 기타 성당 및 공소

교 회 명	대 표 자	신 도 수		
		계	남 자	여 자
대천 성당	이범배(바오로)	1,750	750	1,000
보령 동대동 성당	이덕길	1,500	650	850
대천 해수욕장 성당	정운광	197	78	117
갈매못 성당	오명관(베네딕트)	55	25	30
은포 공소	강재영	60	20	40
웅천 공소	김완경	60	25	35
도화담 공소	표일호	64	21	43

5. 개신교(改新敎)

1) 개신교의 개관

개신교는 불교, 이슬람교와 더불어 세계 3대종교의 하나이며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다. 16세기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여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운 것이 시초이다. 개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신앙의 근본교의로 삼는다. 즉 성경의 표현으로 요약된 구절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마22:37)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개신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1882년 조선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한미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미국 선교사들의 입국이 자유롭게 보장되면서 비롯되었다. 구교인 카톨릭은 초기부터 박해를 받아 그 선교가 순탄치 못했으나 개신교는 우리나라가 구미 제국과 수호조약을 맺은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그래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많은 신도를 가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미국인 선교사들 중에 가장 먼저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알렌(H. N. Allen)이었고, 그 뒤를 이어 1885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감리교 아펜젤러(H. D. Aptnzeller)가 입국하여 본격적인 선교사업이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독일의 구츨라프(K. Gutzlaff), 영국의 토마스(R. J. thomas), 미국의 존 로스(J. Ross)와 존 맥킨타이어(J. McIntyre) 등과 같은 개신교 목사들이 선교한 적도 있었으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선교 초기에 기독교는 근대화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885년 2월의 광혜원(廣惠院, 세브란스 전신)을 비롯한 병원을 다수 설립함으로써 의료사업에 힘썼고, 1885년의 배재학당, 1886년의 이화학당과 경신학교 등 근대적 교육사업을 통하여 근대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사고의 인간상 구현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또 1896년의 협성회(協成會), 그리고 1903년 YMCA 설립 등 청소년 사업으로 지덕체의 함양을 기하였으며, 다른 한편 사회정의의 운동으로 이도(吏道)의 쇄신, 술과 담배(酒草) 및 아편의 폐해에 대한 캠페인, 형정(刑政)의 근대적 개혁, 미신의 타파, 여성의 지위향상, 백정의 해방, 가정의 신성성 확립과 같은 사회 도덕적인 개혁운동을 주도하여 왔다.

이와 같은 개신교는 의료 및 교육사업을 통하여 외국의 선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선교활동을 펴 나감으로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를 비롯하여 1890년에는 성공회가 들어왔고 뒤이어 1904년에 안식교, 1908년 구세군이 들어왔다.

그 후 개신교는 일제시대에 가혹한 탄압을 견뎌야만 했다. 즉 1911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자를 말살하려는 105인사건이 있었고, 1915년에는 개정사립학교 규칙을 발표하여 기독교계 학교의 존속을 위협하였다. 3.1운동 때에는 운동의 주도가 교회라고 단정하여 교회에 대한 가혹한 살상을 감행하였다. 특히 화성의 제암리교회가 30여 명의 교인이 갇힌 채 불태워진 사실은 개신교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1920년대에는 종교 유희정책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모진 박해를 받았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총동원 체제를 위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교회의 수난은 극에 달하였다. 2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2,000여 신도가 투옥되었으며 50여 교역자들이 순교하였던 것이다.

8.15광복은 교회의 부흥발전에 새 전기를 이루었으나 6.25동란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교회의 파괴가 285개처, 순교와 납치된 이가 253명이었다. 이러한 사변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민족과 교회일치, 한국적 신학, 역사참여, 신앙고백의 문제에 깊숙이 파고들게 되었다. 현실참여의 의지를 굳히게 된 교회는 우선 1965년 전국복음화 운동을 통하여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를 이끌어 새로운 도덕적 질서와 가치를 도약과 발전의 한국 현대사에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교회안의 일치를 위해 1970년에는 신구교 공동번역의 신약성서를 간행하였다.

1984년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교와 봉사로 민족역사와 동행하였던

과거의 업적을 기리면서 제2세기에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새로운 역사의식에 따라 재정립 한다는 목표를 설립하였다. 즉 세기의 기적으로 평가될 만큼의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한 한국교회는 이제 주는 교회로서 겨레와 나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해 인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실천하고 민족의 발전과 그 정신문화의 창달에 공헌함으로써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천 마량진을 통한 한국 최초의 성경전래

우리나라에 성경이 최초로 전래된 것은 1816년 영국함선에 의해 서천 마량진 앞바다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의 순조 16년의 충청수사 이재홍이 올린 장계와 성경을 전한 영국 리라호 함장 바실 홀이 1818, 1820년 간행한 「한국서해안 및 류큐열도의 항해기」에 상세하게 나와있다. 이 기록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816년 9월(4~5일), 영국함선 알세스트(Alceste)호의 함장 맥스웰(Murray Maxwell)과 리라(Lyra)호의 함장 바실 홀(Basil Hall) 대령이 서천 비인현 마량진 앞 갈곶에 도착했다. 이 배는 이해 영국정부가 중국에 파견하는 특명전권대사인 암허스트를 태우고 중국 광둥에 안내한 후 대기하는 동안 본국 훈령에 따라 조선의 서해안 일대를 탐험하면서 해도를 작성하는 중이었다. 이들 두 척의 배가 1816년 9월 마량진에 도착했을 때 마량진 첩사 조대복(趙大福)과 비인현감 이승렬(李升烈)이 문정차 두 배에 승선 검사하고 모두 세 권의 책과 몇 건의 문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책이 성경이었다고 한다.

9월 4일, 조대복이 리라호와 알세스트호를 차례로 문정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이승렬과 함께 문정하면서 선실의 서가에 가득한 책들과 지구의와 친구의 등에 호기심을 보였다. 이승렬이 그 중 한 권의 책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대영백과사전 전질 중의 한 권 이어서 주지 못하고, 그 대신 다른 책을 주었는데 그것이 성경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해도작성을 마치고 출항하려고 할 때 아쉬워하는 첩사 조대복에게 맥스웰은 책 한 권을 선물로 남기고 떠났는데 그것도 성경이었다고 전한다. 비록 영어성경이기는 하지만 한 권의 성경이 조선인의 손에 처음으로 쥐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보령 고대도를 통한 성경전래

바실 홀과 맥스웰이 마량진에 다녀간 지 16년 후인 1832년에 귀츨라프(Gutzlaff

1803-1851) 선교사가 보령 고대도를 찾아 성경(한문성경)을 전래하였다. 화란선교협의회 소속 독일출신 루터교 목사인 귀츨라프는 우리나라 최초로 방문한 서구 선교사이다. 1832년 7월 17일 장산곶에 도착한 후 7월 22일 녹도 근처 불모도(不毛島)를 거쳐 25일 보령시 오천면에 소재한 고대도에 정박하였다.

고대도에서 고관을 만나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왕에게 헌상할 서신과 한문성경을 비롯한 26종의 책자와 망원경 등을 진상하도록 전달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서적과의약품 그리고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조정의 회신을 기다리는 20일 동안 포도재배법과 포도에서 미주(美酒)를 얻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으며, 가지고 온 감자씨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파종법과 재배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한편 홍주목사 이민회의 서생에게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적어주고 그 옆에 토를 달게 하여 주기도문을 번역한 것이다. 후에 이 주기도문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다.



원산도의 카알 귀츨라프 기념비

**선교사 카알 귀츨라프(MD)기념비
(화란선교회소속 독일신교 선교사)
1803년 피릿츠/포다라니에서출생
1851년 홍콩에서 소천**

카알 귀츨라프(의사) 선교사는 1832년 7월 17일 이곳에 도착하여 한문으로 된 전도지와 주기도문 그리고 감자 종자를 이곳 도민에게 전함. 그의 저서에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보다 훌륭한 여명의 날이 한국에 빨리 이르기를 바램” 이라고 언급함
-그가 오셨든 150주년을 기념하여 1982년 7월 17일 이를 세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KCMEA), 주한서독대사관, 주한화란대사관, 학교법인송죽학원, 지역사회개발위원회

원산도 카알 귀츨라프 기념비 비문

이렇게 귀츨라프 선교사는 우리 지역인 고대도에 한 달여 간 머물면서 성경을 전해 줌으로써 한국기독교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귀츨라프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 고대도 주민들에게 성경과 근대농업기술, 외국과의 교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업적을 이루고 돌아갔다.

귀국하여 귀츨라프는 자신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고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그날을 앞당기려고 매우 간절히 열망했던 것이다.

그가 처음 거절하던 그 성경을 한국의 왕이 받았을 것이라고 듣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그 성경을 읽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고대도의 관리들과 많은 서민들이 성경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들이 미약한 시작일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더 좋은 때가 한국에 임할 것임을 희망하자.

<Griffs, Corea, Without and Within, 288>

4) 보령시 개신교 현황

(1) 감리교

감리교회는 18세기초 웨슬리 형제가 영국 국교회 안에서 시작한 신앙각성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 교회로 조직된 것이다. 이 교파는 켈빈주의를 배격하고 성령의 감화에 의한 신앙경험을 중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84년 미국 북감리회 맥클레 박사가 일본을 경유 입국하여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아 교육과 의료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감리교회의 조직은 감독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교회에 목사 및 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감독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거하면 총회와 연회를 사회하고

교회의 전반사업을 통할한다.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등이 있어 각각 한정된 행정사무를 집행하는데 감리교회의 기본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연회이다.

보령시에 들어온 개신교 중 가장 먼저 감리교회인 대천제일교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설립년도는 1908년 1월 6일(설립자: 김태환)로서, 2008년 1월 6일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이 교회는 각 지역에 지교회를 설립함으로써 보령지역 감리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교회부설로 제일유치원 및 제일어린이집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령 최초로 ‘대천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하기도 했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보령에서 가장 큰 교회로 1,200여 명의 신도를 자랑하는 대천중앙감리교회로서 보령연탄은행, 새생명은행, 무료 중식제공 등 활발한 대민지원 행사를 실행하여 보령시에서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보령시의 감리교회는 교회 33개, 신도수 3,011명에 이른다.



대천제일감리교회

보령시 감리교회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성명	신 도 수		
			계	남	여
웅천제일감리교회	웅천 대창리 348-22	조성한	17	3	14
은포감리교회	주교 은포리 83	이희중	40	10	30
은포제일교회	주교 은포리 115	이경만	30	10	20
주교은혜교회	주교 주교리 105-3	곽태석	10	3	7
신대창신감리교회	주교 신대리 1127-1	박형배	50	15	35
효자감리교회	오천 효자도리 83	이진곡	16	4	12
녹도감리교회	오천 녹도리 207	송원준	21	3	18
삼시도감리교회	오천 삼시도리 79-4	김광수	25	5	20
외연도감리교회	오천 외연도리 318-1	정택환	50	15	35
구치감리교회	오천 원산도리 993-1	이정열	28	1	27
호도감리교회	오천 녹도리 호도 9	임성대	30	5	25
선촌감리교회	오천 원산도리 420	정형진	39	16	23
육도감리교회	오천 효자도리 육도	노태성	12	5	7
삼시도제2교회	오천 삼시도리	김희태	16	6	10
한우리교회	천북 낙동1리	김봉임	32	2	30
재정교회	청소 재정리 74-1	한철희	37	7	30
풍정감리교회	청소 재정리 532-4	강주성	12	2	10
청라제일감리교회	청라 라원리 946-2	임성대	10	8	2
내현교회	청라 내현리 162-3	송재묵	5	2	3
시온제일교회	남포 봉덕리 484-1	이환균	70	20	50
주산감리교회	주산 주야리 210	이명선	30	8	22
소망교회	죽정동 667-2	박종현	120	30	90
청천교회	죽정동 125	천세광	100	20	80
대천제일교회	대천동 154-6	박인호	500	200	300
동대교회	동대동 566-7	조철래	220	80	140
대천중앙감리교회	동대동 879-1	박세영	1,185	445	740
보령시민교회	동대동 574-18	문필규	30	10	20
열린감리교회	화산동 97-5	임재원	21	7	14
대천조은교회	동대동 1069	김용순			
에덴동산감리교회	동대동 747-1	최상호			
영포교회	신흥동 산 3	박용구	40	10	30
육장감리교회	신흥동 841-1	이혁창	185	72	113
서해중앙교회	내항동 759-3	임성식	30	5	25

자료: 보령시 문화공보실(2007. 12)

(2) 장로교

장로교회는 16세기 이후 켈빈의 주장에 의하여 설립된 교파로서, 켈빈파 혹은 개혁파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 1884년 미국 북장로회의 알렌(H. N. Allen)부부와 1885년 언더우드(H. G. Underwood)선교사가 입국하여 선교의 문을 열면서 시작되었다. 장로교는

그 조직에 있어서 2가지 기본요소가 있다.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훈을 맡아서 하는 장로인 목사와 일반교우의 대표자로서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장로이다. 행정제도에는 제직회, 당회, 노회, 총회가 있는데 제직회는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으로 구성되어 교회의 영적사업을 담당하며,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예배, 권면, 징계, 학습과 세례와 그 밖의 신령상 제반사항을 주관한다.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되며 총회는 장로회의 최고 기관으로써 교리와 교회지도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고 개정하기도 한다.

보령시 내의 장로교회는 2007년 12월 현재 111개 교회가 있으며 신자수는 총 8,368명에 이르러서 개신교 중 가장 많은 교회와 신자를 가지고 있다.

보령시 장로교회 현황

교회명	소재지	성명	신도수		
			계	남	여
신웅천교회	웅천 대창리 428-5	명재경	270	110	160
웅천교회	웅천 대천리 150-3	최정홍	150	30	120
중앙교회	웅천 대창리 705-1	김진오	80	20	60
소망교회	웅천 대창리 331	엄일흠	49	20	29
축복교회	웅천 노천리 217-3	권오덕	25	5	20
소황교회	웅천 소황리 608-13	김기현	63	12	51
무창포장로교회	웅천 관당리 779-2	이기영	30	12	18
독산교회	웅천 독산리 240	김의태	55	15	40
구령교회	웅천 구룡리 산72-7	황택상	50	20	30
수평교회	웅천 수부리 376	최세동	261	98	163
기독교성동교회	웅천 성동리 665	안세환	60	10	50
주포장로교회	주포 보령리 412-1	이신희	170	80	90
관산장로교회	주포 관산리 산6	이봉환	20	5	15
보령동산교회	주포 연지리 725	김용택	2		2
주교장로교회	주교 주교리 산34	최영목	50	15	35
주은장로교회	주교 은포리 112-1	박성수	15	4	11
관창장로교회	주교 관창리 186	김고안	20	8	12
주교애향교회	주교 주교리 928-1	김용정	30	15	15
주교은평교회	주교 주교2리	이인규	20	4	16
초전교회	오천 원산도리 53	이원우	10	4	6
오천장로교회	오천 소성리 614	임천수	80	20	60
고대도교회	오천 고대도 1022-1	박원열	17	6	11
시온교회	천북 신죽리 297-1	김영진	100	30	70
천북신죽기경교회	천북 신죽리 527-1	오종옥	10	2	8
빙도교회	천북 낙동리 995	전광준	10	4	6
낙동리 교회	천북 낙동리 637-14	오복환	23	5	18
천북동음교회	천북 하만리 642-10	김갑수	41	11	30
천북신덕교회	천북 신덕리 205	정문화	26	7	19

신송교회	청소 신송리 산51	이요섭	5	1	4
송덕교회	청소 진죽리 940	김근태	20	4	16
야현중앙교회	청소 야현리 320-2	손재산	15	5	10
청라중앙교회	청라 라원리 767	신희식	30	10	20
청라교회	청라 라원리 877-2	조호환	60	15	45
청라에그린교회	청라 라원리 산104-4	강선찬	7	4	3
의평교회	청라 의평리 310-10	신성아	55	20	35
옥계교회	청라 옥계리 산86	김종화	30	12	18
향천교회	청라 향천리 17	이인환	60	20	40
상중교회	청라 라원리 산64	전양수	30	10	20
청보중앙교회	청라 내현리 620	구성학	5	2	3
신광교회	청라 황룡리 1217	박웅대	30	8	22
창동교회	남포 창동리 369	전성호	40	10	30
봉덕화덕교회	남포 봉덕리 산15	김태수	110	40	70
환리교회	남포 봉덕리 492	호희철	40	15	25
달산벤엘교회	남포 달산리 12-2	조중환	30	10	20
달산중앙교회	남포 달산리 514	백용구	40	10	30
양향제일교회	남포 양향리 443-1	송덕근	80	20	60
삼현장로교회	남포 삼현리 574-3	한길수	100	30	70
대성교회	남포 삼현리 349-1	유병성	35	10	25
옥서교회	남포 옥서리 361	조수봉	20	5	15
신희장로교회	남포 신희리 215	최용준	30	9	21
양향교회	남포 양향리 678	강일만	70	20	50
양기총령교회	남포 양기리 100	김주형	5	2	3
월전교회	남포 월전리 517	김정수	120	30	90
우평교회	남포 양향리 273	조남권	30	6	24
소송교회	남포 소송리 270	오동예	10	3	7
읍내교회	남포 읍내리 179	김상욱	100	30	70
사현교회	남포 옥서리 89	최연범	22	5	17
소송제일교회	남포 소송리	이상숙	30	10	20
원천교회	남포 창동2리	서무식	15	5	10
월전제일교회	남포 월전리 540	최용수	20	5	15
영흥사자교회	남포 봉덕리 195-5	박정용	12	6	6
주산제일장로교회	주산 야룡리 132-6	신철순	300	100	200
증산교회	주산 증산리 69-1	정종국	50	12	38
동오교회	주산 동오리 산 39	이원선	30	10	20
삼곡교회	주산 삼곡리 664	심구오	65	10	55
황성교회	주산 황룡리 257	강신권	8	1	7
주산교회	주산 황룡리 515-3	정해용	25	10	15
유곡교회	주산 유곡리 225-3	박장규	66	15	51
도화담장로교회	미산 도화담리 228-1	최성도	11	5	6
미산중앙교회	미산 늑전리 159	현영배	80	30	50
미산성실교회	미산 내평리 321-2	남승복	50	13	37
도흥교회	미산 도흥리 275	이복필	23	6	17
봉성언약교회	미산 봉성리 475-1	배영도	13	5	8
옥현장로교회	미산 옥현1리 166	김명섭	50	15	35

내동교회	미산 옥현리 산2	김선이	7	1	6
은현장로교회	미산 은현리 81	백승대	30	15	15
오동교회	미산 대농리 6	윤영자	100	30	70
성주장로교회	성주 성주리 202-5	장기홍	222	30	110
성주제일교회	성주 성주리 265-27	윤재봉	70	15	55
성광교회	성주 성주리 63-7	유재운	30	10	20
머릿돌교회	성주 성주리 235-5	함영식	30	10	20
갈릴리교회	성주 개화리 14-1	박병길	10	2	8
대천남부교회	대천동 297-113	방정수	35	10	25
대천제일교회	죽정동 745-5	임현균	200	70	130
대흥장로교회	대천동 110-5	정우열	400	140	260
영광교회	대천동 297-80	방재수	150	60	90
중앙장로교회	대천동 318-40	최태순	800	300	500
대천장로교회	대천동 156-5	라홍균	500	150	350
대천서부교회	대천동 489-6	송영희	180	60	120
소망장로교회	대천동 363-11	이성중	20	5	15
대동장로교회	동대동 1093	전종서	200	95	105
초대교회	동대동 1230	이종화	140	50	90
동승교회	화산동 707-1	강홍식	38	16	22
반석장로교회	동대동 983-78	임현병	110	40	70
보령중앙교회	동대동 1168	박상현	8	3	5
부름교회	동대동 805-2	안주옥	10	2	8
사자교회	동대동 892-4	박정용	12	5	7
동광장로교회	동대동 1413	신난순	50	20	30
보령교회	동대동 1935-1	김삼수			
동대천교회	동대동 1622	홍무열	170	70	100
은현교회	동대동 1508	백승대			
흥덕교회	명천동 511-7	나동일	100	35	65
이천교회	명천동 797	김병영	30	12	18
대천예수사랑교회	명천동 173-1	박상순	20	7	13
명천교회	명천동 972	문광식	7	1	6
광명교회	신흥동 927	신현배	10	2	8
대신장로교회	요암동 609	박재일	123	51	72
남곡장로교회	남곡동 704	송택	22	10	12
안디옥교회	신흥동 338	나일호	50	10	40
대천항교회	신흥동 928	조석봉	100	16	84
남곡벤엘교회	남곡동 578-3	정성용	70	10	60
대천신흥교회	신흥동 1114-3	안병갑	500	200	300

자료: 보령시 문화공보실(2007. 12)

(3) 성결교

성결교회는 원래 독립된 교파가 아니고 초교파적으로 동양에 전도할 목적으로 카우먼 목사와 킬보른 목사에 의해 조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동양선교회 북음전도관을 서울 무교동에 세우고 전도를 계속하다가 1922년에 동양선교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해방 후부터 대한 성결교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회의 조직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 직원회, 사무총회가 있어서 교회의 문제를 의결한다. 또한 일정한 구역별로 지방회가 있어 구역 안 교리의 문제와 전도방침을 협의하며 매년 총회가 있어 교회의 전반에 관한 일을 협의한다.

보령시의 성결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령시 성결교회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성 명	신 도 수		
			계	남	여
원의성결제1교회	오천 원산도리 77	이찬호	40	9	31
원산중앙교회	오천 원산도리 1472	이영민	47	11	36
진죽성결교회	청소 진죽리 336-1	이상우	120	30	90
삼현성결교회	남포 삼현리 115	정민섭	10	1	8
초장성결교회	죽정동 662-14	유현상	110	50	60
밀알성결교회	동대동 1490	이혁의	45	15	30
은혜와진리교회	동대동 1285	최정숙			
한내성결교회	궁촌동 50-1	조경연	200	80	120
성광교회	대천동 498-6	김덕규	380	180	200
제일성결교회	대천동 459-21	차대현	150	30	120
대천성결교회	명천동 90-2	송천웅	430	200	230

자료: 보령시 문화공보실(2007. 12)

(4) 침례교

침례교회는 19세기초 영국교회의 스미스(J. Smith) 목사가 설립한 교파이다.

우리나라에 1890년 12월 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극동선교의 사명을 띠고 내한한 펜위크 (M.C.Fenwick) 선교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침례교는 자발적인 신앙고백을 갖지 않는 유아의 침례는 인정하지 않고, 물에 담그는 침례식을 주장한다. 특색으로는 신앙과 생활의 규범은 오직 성서의 가르침에 따를 것, 자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자만이 성도의 자격이 있으며 교직자는 만인사제설(萬人司祭說)에 따라 영적 내림을 받은 자라야 할 것 등이다.

보령시에는 25개 교회, 신자 수는 총 1,700여 명에 이른다.

보령시 침례교회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성 명	신 도 수		
			계	남	여
무창포침례교회	웅천 관당리 393-2	김완진	40	10	30
무창포제일교회	웅천 관당리 751	우병석	25	12	13

중앙교회	주포 봉당리 530	이경철	55	17	38
주포침례교회	주포 관산리 502-2	박남수	90	35	55
성광침례교회	주교 주교리 109	김영식	80	50	30
기쁜소식대천교회	주교 신대리 1071	최원배	30	15	15
신대중앙침례교회	주교 신대리 367	신의균	30	5	25
천북제일침례교회	천북 하만리 268	백영흠	380	109	271
천북중앙침례교회	천북 낙동리 258	임범수	53	11	42
천북학성침례교회	천북 학성리 517	이근창	50	10	40
천북장은침례교회	천북 장은리 428	오인복	48	10	38
사호침례교회	천북 사호리 246	강태영	32	11	21
천북신흥침례교회	천북 하만리 257-3	방은수	150	50	100
죽림침례교회	청소 진죽리 274	임병준	40	12	28
청소침례교회	청소 정전리 629	유금종	40	12	28
동보침례교회	청라 의평리 49-2	이상섭	20	4	16
남포은혜교회	남포 창동리	장관성	30	15	15
미산제일침례교회	미산 도화담리 174-3	구권환	70	20	50
개화침례교회	성주 개화리 246	장동훈	60	20	40
제일침례교회	대천동 22-17	최순영	30	15	15
대천성락교회	대천동 101	고갑엽	20	10	10
대천침례교회	대천동 407-4	조성훈	160	40	120
동대침례교회	동대동 1853	신영길	70	30	40
산성침례교회	동대동 739-35	신영길			
웅포침례교회	오천 교성2리 산100	박선원	110	40	70

자료: 보령시 문화공보실(2007. 12)

(5) 구세군

영국인 W. 부스에 의하여 창설된 교파로써 민중전도와 사회사업을 주로 하는 그리스도교의 하나이며, 군대식으로 조직 개편하여 구세군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1908년 7월 구세군 창립 43주년 대회에서 W. 부스 대장은 허가두(R. Hoggart) 정령을 구세군 한국 개척자(사령관)로 임명하였고, 동년 10월 서울 서대문 평동 76번지에서 한국선교를 시작하였다.

보령의 구세군 활동은 매년 연말에 자선냄비 등을 통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보령의 구세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령의 구세군교회 현황

교회명	소재지	성명	신도수		
			계	남	여
구세군주교영문교회	주교 주교리 905-1	하준태	50	20	30
구세군은포영문	주교 은포리 788-2	노명우	65	20	45
구세군오천영문	오천 소성리 745-2	임제봉	50	10	40

교성구세군교회	오천 영보리 153-1	최대근	50	20	30
구세군진죽영문	청소 진죽리 318-1	김태근	80	20	60
구세군대천교회	대천동 318-38	최일규	200	50	150
동대천구세군	동대동 421-2	배태성	60	25	350

자료: 보령시 문화공보실(2007. 12)

(6) 개신교계 기타교회

교회명	소재지	대표 성명	신도수			교파명
			계	남	여	
청라순복음교회	청라 소양리 346	김종순	11	6	5	순복음
송학순복음은혜	주교 송학리 415	김선자	29	11	18	순복음
순복음대천교회	대천동 53-2	손은상	60	10	50	순복음
한내순복음교회	동대동 1396	김익현				순복음
복음교회	오천 교성1리 897-1	권오갑	20	6	14	순복음
삼광교회	오천 갈현리 735-1	안영준	50	10	40	그리스도의 교회
복지교회	오천 오포리 574-2	김학수	15	2	13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동대동 1230	이중화	22	8	14	기독교
송학하나님의 교회	주교 송학 산41-3	김옥순	110	40	70	하나님의 교회
영보교회	오천 영보2리 산6	이원태	7		7	하나님의 교회
서해교회	오천 오포리 740	김남곤	13	3	10	하나님의 교회
저두 원의3교회	오천면 원산 2리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동대동 1340	최재완	35	12	23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예수재림교회	웅천 대천리 80-7	이상동	38	12	26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행복한 주님의교회	주교 주교리 85-7	임영빈	30	10	20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예수재림관창교회	주교 관창리 289	김병갑	20	7	1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예수재림교회	청소 진죽리 372-18	이대준	135	30	105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예수재림교회	주산 아룡리 147-1	남영록	60	25	35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제7일안식일교회	오천 원산3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천안식일교회	대천동 137-3	박문복	100	30	70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남곡안식일교회	남곡동 491-2	변성보	60	10	50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살렘동산교회	천북 낙동리 88-16	권영수	113	53	60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천통일교회	대천동 618-87	민승기	120	60	60	통일교

자료: 보령시 문화공보실(2007. 12)

6. 기타 종교

종교명	명칭	대표자명	신도수	소재지
원불교	원불교	교무 최경남	50	동대동 730-11
수운교	약사암	류효석	43	주교 관창리 297
수운교	성주암	편순희	100	명천동 산72
수운교	운수암	김구한	300	청라 장산리 696-6
증산도	보령동대도장		50	동대동 1390

자료: 보령시 문화공보실(2007. 12)